

대미 종속의 극복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열쇠다

신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처사에 대해 처음엔 매우 언짢았었다. 그런데 개방된 청와대에 우리 국민들이 즐겁게 방문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 전임 정부도 추진했던 ‘청와대를 국민에게로’란 구호의 현실화는 윤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이었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열쇠를 대미종속의 극복에서 찾는 필자로서는 윤 대통령의 저런 결단과 추진력이라면 기대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세계패권의 유지가 대외정책의 핵심인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국가화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 북한과 거래로 NPT(핵비확산조약)체제의 약화를 가져올 정책을 선택할 리도 없다는 사실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하노이 회담에서의 미국 행태를 보며 우리가 잘 알 수 있었다. 북한이 원하는,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이 아니라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기 위한 북미정상 회담이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보며, 이제 핵문제도 해결되고 남북관계도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통일의

■ 통일사색



이성원
남북체육교류협회 상근부회장

날도 그리 멀지 않다는 꿈을 꾸며 하노이 회담을 기대했었다.

전임 민주당정권의 북한관련 대미정책의 핵심은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중재자 역할을 통한 핵문제 해결, 전작권 환수를 통한 군사주권의 회복, 종전선언을 통한 UN사의 DMZ 관리에서 벗어나 주도적 남북협상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로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수습조원에 달하는 무기구입은 물론, 북한과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사업 재개) 미국의 뜻에 따랐으나, 그 결과는 금년 들어 북한의 16차례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7차 핵실험을 불한 가운데 대책 없이 바라만 보는 상황이다.

북한은 세계 군사력의 지위가 12위에서 6위로 변한 남한 정부를 보며 기만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더욱 매진하게 했을 것이고, 자력갱생과 자주국방만이 살길이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 군산복합체의 무기판매 이익이 가장 많이 창출되는 한국과 일본의 수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불안한 상황, 즉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미국 본토 위협수준까지 이르지만 않는다면 미국으로서는 현상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미동맹으로부터의 국가안보를 지킬을 생명으로 삼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한반도 불안 상황의 해결은 결국 우리 몫이다.

전임 정부가 북한과 한 약속의 이행 의지를 내보이면서 북한의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대북제재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 등 이 모두를 고려하면서 우리의 자주적 해결책을 가지고, 미국의 의사와는 일부 다를지라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을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의암 손병희를 아시나요?

우리 역사에는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할 인물이 많다. 특히 엄혹한 시대에 일신의 안일 함보다는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분들이 그러하다. 의암 손병희 선생도 그중에 한 분이다. 3·1독립혁명의 민족대표 33인 중의 대표임에도 정작 3.1혁명이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은 유관순 누나뿐이다.

하물며 손병희가 동학혁명 당시 동학군 최고지도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동학혁명 하면 무조건 전봉준을 떠올리지만, 손병희는 글세다. 그러나 손병희는 30만 동학군의 총지휘자였다. 1차 동학혁명은 호남지방에 국한된 거사였지만 그 해 9월의 2차 기포는 동학교주 해월 최시형에 의해 전국의 동학도가 총동원할 것을 천명한 항일전쟁이자 진정한 혁명이었다. 해월은 1차 기포에서 전투력과 지휘력을 인정받은 전봉준을 호남의 최고지도자로, 그리고 영남과 충청, 강원 그리고 경기도와 이북지역 동학군의 총지휘관으로 당시 34살의 손병희를 임명했다.

안타깝게도 동학혁명은 무능한 정부와 왜군에 의하여 좌절되었지만, 보국안민·광제창생·척양척왜의 기치 아래 전국을 들불들의

■ 맺돌고성(孤聲)



임형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함성으로 뒤덮였다. 혁명의 참여자들 대부분 체포되어 처형당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살아 남은 유일한 지도자는 손병희였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동학의 불씨를 살리고 백성이 하늘처럼 대접받는 인내천(人乃天)의 세상을 건설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동학의 3대 교주가 되어 있었다. 북쪽 지방에서 동학은 다시 살아났지만, 관의 추적을 피해 손병희는 적국인 일본으로 숨어야 했다. 일본에서 체류하는 동안 그가 목격한 것은 일본의 높은 민도와 개화된 생활이었다. 충격을 받은 손병희는 국내의 개화혁신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측근인 이용구의 배신으로 동학은 일치회와 같은 노선을 걸어 줄지에 친일조직으로 오해되었다. 손병희는 급거 귀국해 동학

을 천도교로 개칭하고 친일파들을 출교시켰다. 민족종교 천도교의 탄생이었다. 이후 손병희는 언론·출판과 교육사업에 투신하였다. 오늘 고려대의 토대를 닦은 이도 손병희였다. 1910년 조국이 강제병탄 되자 그의 노선은 자주독립으로 전환되었고 준비를 하면서 기회를 엿보다 1919년 3월 1일을 맞이하였다. 천도교는 3.1혁명의 대중화를 위해 모든 종단의 참여를 독려했고 일원화를 위해 독립선언서를 인쇄했으며, 시위방식은 철저한 비폭력을 고수케 했다. 위대한 3.1혁명은 그의 원대한 이상에서 출발한 것이고 임시정부 헌법의 민주공화정도 그로부터 기원했다.

지난주 천도교에서는 의암 손병희의 추모식이 조촐하게 치러졌다. 혁명가요, 종교개혁가이자 독립운동의 선구자인 그는 옥중에서 받은 고문 등으로 100년 전 숨을 거두었다. 백범 김구가 해방 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식행사는 임정의 요인들과 함께 서울 우의동에 있는 손병희의 무덤을 찾아뵙고 귀국 보고를 드리는 것이었다. 동학혁명 당시 김구는 해주의 접주로 손병희의 부하였다. 한없이 고개 숙여지는 손병희 선생 순국 100주년이 있다.

북한에 창궐한 코로나19와金正은의 선택

북한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이후 육로 해로 하늘길을 스스로 차단하면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국이라고 자랑하다가 5.12 최초로 평양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나온 국가 최종대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공개하였다. 이후 방역대전, 건국 이래 최대동원 등의 표현을 하면서 전국 모든 도시 군을 봉쇄하고 사업소별 생활단위별 격폐된 생활을 하면서 전주만 집중 검병과 발열자에 대한 격리 및 치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19 특성으로 매일 수십만명의 확진자와 함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열악한 보건환경과 백신을 포함한 해열제 등 의약품이 충분치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이 강조하는 자력갱생의 정신 즉, 자체적으로 코로나 19라는 역병을 잠재우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코로나19 청정국이라고 주장할 때 국제사회는 북한이 체제 선전차원에서 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4.25 북한인민군 창건 90주년 기념행사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수만명이 집단 행사를 하는 북한

■ 통일사색



김형석
전 통일부차관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을 보면서 북한이 정말 코로나 역병에서 벗어날까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데 북한은 돌연 2년여 넘는 기간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코로나 발병 사실을 공개하고 김정은이 마스크를 두겹으로 쓰고 평양 시내 약국을 살펴 보는 등 북한이 비상태세에 들어갔음을 대내외에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에 대해 코로나19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공개하고 외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도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경제난 등으로 불만이 쌓인 북한 주민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이번 코로나 상황이 북한의 체제위기로까지 갈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할 것이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핵개발과 인도적 상황은 별개로 다루어 나간다는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 코로나 관련 지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의 선택이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지원은 받더라도 한국과 미국에게는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한다. 해열제가 충분치 않아 버드나무 잎을 다려 마시라고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도의시키고 재앙 해결에 필요한 외부 지원을 자존심과 정치 군사적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안타까운 인명 손상을 초래하는 반인도적인 행태이다.

북한은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및 국제사회의 손을 기꺼이 잡고 긴장 조성과 반목에서 나와 상호 협력의 길로 나오길 기대한다. 김정은이 원하는 북한 체제보위는 인도적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 아닌 건강하고 행복한 상황에서 생활하는 북한 주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사설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직 이양 합의 파기는 ‘무리수’

‘입법 독주’ 이미지만 높일 뿐, 민심 회복에 백해무익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이양하겠다는 기존 합의를 공식적으로 뒤집은 일은 아무리 보아도 민심 회복에 유익하지 않은 ‘무리수’로 일한다. 당장 정부·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리하다고 해도 비논리적 언행을 지켜보는 국민의 눈에 곱게 비쳐질 리가 만무하다. 그러잖아도 국민의 힘에 지지율을 역전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형태의 ‘내로남불’로 여겨질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한 방송에 나와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에 대해 기존 합의의 파기를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 파기의 명분으로 “국민의힘이 그동안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 오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자 법사위원장직을 장악하면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던 민주당의 모습을 곧바로 떠올릴 것이다.

작년 7월 합의의 당사자인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며칠 전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는 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그 이유로 “검찰 쿠데타가 완성돼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견제할만한 사람은 국회 내에 법사위원장밖에 없다”고 했는데 거듭 읽어 봐도 논리적 합리성이 빈약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즉각적으로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한다는 건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라며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번 ‘검수완박’ 법안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탈락 받았다가 지지층의 역풍을 맞아 황급히 합의를 번복한 전력이 있는 국민의힘으로서 민주당의 합의 파기에 반발할 입지가 옹색하다. 특히 하나 의장 중재안 합의 파기의 주역인 권 원내대표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에 진정한 필요한 것은 대선 석패의 통분을 딛고 국민에게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수의 힘으로 뭔가를 자꾸만 밀어붙이려는 행태는 ‘입법 독주’ 이미지만 높이는 역효과만 초래하기가 십상인 상황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이상민 의원의 “법사위원장은 원칙대로 해야 한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각각 다른 당이 나눠서 몫을 맡고 있고, 거기에 비춰 일반론을 따르자 하면 될 것”이라는 반론도 귀담아들을 가치가 있다.

지난 21대 총선 대승 이후 민주당에 생긴 ‘힘의 논리’ 의존 관성이 문제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좋다. 민심을 바탕으로 당론을 이끌어가면서 입법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양보와 타협의 미덕을 발휘하는 게 핵심이다. 반상(盤床)의 판세에 오감이 묶여서 시야를 두 뼘 바둑판 위로 한껏 좁혀놓고 근육의 힘에만 의존하는 정치야말로 최악의 하수 정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민주당은 좀 더 대승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입법 독주’ 이미지만 높일 뿐, 민심 회복에 백해무익한 국회 법사위원장직 고수 같은 소탐대실의 무리수를 고집하는 것은 슬기로운 선택이 아니다. 대선 패배 이후 좀처럼 감동적인 모습을 일궈내지 못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딱하다.

■ 조현정의 오늘의 성찰

욕망과 절제

적은 것에 길들면 길들수록 우리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절제는 결코 ‘힘의 억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또 선의 정지, 사랑과 신앙의 정지를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에게 자신이 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정신력의 발현이다. (존 러스킨)

연기가 벌을 벌집에서 쫓아내듯 식탐은 정신적인 신의 선물과 지성을 쫓아낸다. (성 바실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은 커다란 행복이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은 더 큰 행복이다. (메넬레)

불나방은 제 몸이 타는 것도 모르고 불 속으로 날아든다. 또 물고기는 위험을 모르고 낚싯대 끝의 미끼를 문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육체의 쾌락이 불행의 그물로 싸여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놓치려 하지 않는다. 바닷물은 무분별의 늪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인도 속담)

우리의 욕망은 언제나 조절부절못하며 어머니에게 이것저것을 늘 조르면서 무엇을 얻어도 만족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다.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더욱더 귀찮게 한다. (성현의 사상)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모든 사람



목사·예수살기 대표

한테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가? 자신의 운명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탈무드)

인간이 거부한 것은 그에게 고통을 주지 못한다. ‘내가’ ‘나의’라고 하는 마음속의 오만을 이긴 자는 이미 높은 세계에 가 있다. (인도 격언) 급할수록 돌아가라. 너무 작게 먹었다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 자연은 조금밖에 요구하지 않지만, 인간은 많은 것을 요구한다.

삶은 즐거운 것이며, 아름다운 것이지요, 하지만 즐거움이나 아름다움은 일이나 물건에 있지 않습니다. 정신에 있습니다. 정신이 빠지면 춤을 추어도 미친 짓이요, 장식을 해도 시체에 달린 부장품입니다. 욕 같은 손가락이라도 한번 내 몸에서 끊어지면 더러운 것이 되고, 피조리같은 노래라도 나를 잊게 하는 것이면 독한 주문입니다. 즐거움도 아름다움도 전체를 하나로 살리는 의미가 있어야만 합니다. (함석헌)

주요 출처 :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